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

주일에배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오전(1부) 7시

오전(2부) 10시

주일에배 오후(3부) 3시

저녁예배 7시

금요일예배 (저녁) 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9년 5월 19일 (제1003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동 우 겐 렘

사람을 대하는 법

나는 참 많은 사람을 만난다. 그 층은 다양하다. 정말 많이 배운 사람부터 낮 놓고 기억 자도 모르는 사람까지, 수십만 평 집에 사는 사람부터 집조차 없는 노숙자, 어린이로부터 노인까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만난다. 그런데 내가 사람을 분류하는 기준은 돈이 많고 적고, 많이 배웠고 못 배웠고가 아니다. 나는 마음으로 대할 사람과 머리로 대할 사람으로 나눈다.

언젠가 세계적인 인물을 대면한 적이 있다. 그는 내 앞에서 다리를 꼬고는 거들먹거리며 “목사님을 만나니 사막에서 다이아몬드를 만난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다. 언뜻 들으면 과한 칭찬 같으나 잘 생각해보면 그게 아니다. 그런 그를 대하는 나의 태도는 이랬다. 나는 한술 더 떠서 신발을 벗고 발바닥이 천장을 보게 꼬고는 “사막에서 다이아몬드라... 나를 놀리는구먼, 사막에서 다이아몬드가 무슨 소용이 있겠나. 오아시스가 제격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랬더니 그가 바로 꼬았던 발을 내리고는 죄송하다고 했다. 이런 사람과는 마음으로 대화할 수 없다. 그러나 이야기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속내까지 다 털어놓게 되는 사람, 괜히 척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굳이 꾸미거나 돌려서 표현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있다. 이것이 마음으로 하는 대화다.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대화는 마음의 대화가 아닌 머리로 하는 대화였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계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독사의 새끼’라고 질타하시고 마음을 닫으셨다. 그러나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였음에도 그와의 대화는 그야말로 마음의 대화였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비록 주님을 부인했지만,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제일 잘 아십니다.”, “내 양을 치라.”

베드로에게 그러셨듯이 주님은 늘 마음을 열고 우리와 대화하시길 원하신다. 사람 때문에, 세상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면 주님과 마음을 열고 대화하라. 그분이 위로하시리라.

마지막까지 잘 가자

성경의 구약 레위기기에 보면 부녀와 간음할 경우 둘 다 반드시 죽이라는 법(레 20:10)이 있다. 어느 시대나 인간의 본능에 좌우되는 범죄로 인해 가정과 사회질서를 어지럽힐 경우 그에 합당한 법으로 처벌하곤 하였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제시하신 법은 더욱 엄중하다.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네 오른눈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네 오

란 말씀이다.

목사님은 지난주일 오후예배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목회 35년에 들며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30여 년의 내 목회노정을 되돌아보면 물 없는 사막이요, 눈 덮인 산아라고 토로해왔지만, 실상 예수로 인해 핍박 받으며 그분의 법을 따르기 위해 거쳐 온 고난의 길은 차라리 견디기 쉬웠습니다. 이는 그날에 반드시 보상이 따르는 소망의 경주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지탄을 받지 않기 위해 나를 절제하고 다스리는 삶이 내 목회 가운데 가장 힘들었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 아무리 봐도 예

며 따르던 성도들에게 나의 도덕적 흠결은 얼마나 큰 충격과 상처가 될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늘나라를 파괴하는 크나큰 범죄임을 자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거울을 보며 나를 다듬었고, 언행심사 일거수일투족에 조심하고 또 조심하려 애썼습니다. 누군가 나를 보고 계신 분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사회적으로 지탄 받는 이유가 예수를 전한다고 그럴니까? 목사, 장로 등 교회의 지도적 위치에 있는 자들이 도덕적 문제를 일으켜 지탄의 대상이 되고 교회가 한꺼번에 비난을 받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얼굴에 화장은 해드리지 못할망정 풍질을 해대고 있으니 개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계2:26)

른손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마5:27~30).

실제 행위가 아니라 마음에 음란한 생각만 해도 이미 간음한 것이라는 말씀이다. 따라서 그러한 생각을 일으키게 하는 몸의 지체를 제거하고서라도 지옥에 가지 말라는 강력한 권면의 말씀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복잡한 제사법의 굴레를 벗겨주는 대신 도덕법을 극도로 강화시켰다는 면이 한 가지요, 이를 인간의 측면에서 보면 이 법에서 자유로울 자, 스스로 의롭다 할 수 있는 자는 단 한사람도 없기에 죄인임을 속히 자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깨달

수께서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 비난을 받았다는 대목은 없습니다. 그분이 이단의 괴수요,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 갇은 핍박을 받다 죽기까지 하셨지만, 단 한 번도 비도덕적인 행위로 지탄 받으신 적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나 또한 예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며 핍박 받았던 사도들처럼, 많은 핍박과 환난을 거쳐 왔지만, 그것보다 더욱 힘든 것이 도덕적인 문제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나를 점검하고 다스리고 절제하는 일이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내가 아프다고 하니 눈물로 금식하고 기도하며, 몸에 좋다는 온갖 보약을 가져다주는 저 아름다운 성도들을 보며, 내가 정말 도덕적으로 흠결이 있어선 안 되겠다는 생각을 더욱 다지며 왔습니다. 저렇게 나를 사랑하

인은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는다 하여도 그 파급과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을 어찌할 겁니까? 사랑하는 목사님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할 일입니다.”

목사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다. “공든 탑이 무너지랴? 무너진다. 그 공든 탑을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하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 거목이 자라는 데는 수십, 수백 년이 걸리지만, 자르는 데는 10분이면 족하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끝까지 견디며 이기는 자에게 약속된 보상의 말씀이 무수히 나온다. 끝까지 견디며 이겨야 한다. 마지막까지 잘 가자.

한은택 목사

henry8829@naver.com

수요일예배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30분 KBS88체육관(화곡동)
문의: 02. 533. 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행4:12~31)

사도행전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을 통한 성령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사도행전이 28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행전에는 마침표가 없습니다. 성령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진행형으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사도들만이 아닌 성령을 받은 모든 자들이 다음 장을 써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이 친히 나셨습니다(요일5:1). 하나님의 자녀이면 당연히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크리스천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나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있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해서입니다. 성경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롬8:14)고 하였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행1:8)라고 하심으로, 성령을 받아야 확실한 하나님 자녀가 되고, 권세를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넘기셨는데(마28:18), 그 예수님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당신의 권세를 이양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눅22:29).

배터리가 방전된 휴대폰은 무용지물이다

그렇다면 하나님 자녀가 누릴 권세가 무엇일까요? 이는 마가복음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찌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막16:17~18). 성령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셨으니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말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방언을 말하고, 원수를 진멸할 수 있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낫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바울이 이 권세를 사용해서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한 것이고, 저 역시 이 능력으로 세계를 다니며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능력을 행하고, 이보다 더 큰 표적도 나타내라고 하셨습니다(요14:12). 이것이 절대 불가능할 일이 아닙니다. 성령은 곧 하나님의 영일진대,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무엇이

들 못하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기에 이것은 절대 교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당시 공간적인 제약을 받으셨지만,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는 멀리까지 가서 일을 할 수 있으니 더 큰 일도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잘못되었다고 합니다. 하긴 귀신만 쫓아도 잘못되었다고 하니 무슨 말을 더하겠습니까? 이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이요, 제사장인 지식을 버렸기에 그렇습니다(호4:6).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다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구게 배웠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며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고, 70인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받은 성령이나 제자들이 받은 성령이나 동일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성령은 다른 성령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받은 성령이나 여러분이 받은 성령이나 동일합니다. 그런데 왜 권세가 없습니까? 왜 귀신을 대적하지 못하고 귀신에 눌려 가난하고, 병들고, 망하고 그러니까? 이는 성령을 소멸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소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떠났다는 것을 의미함으로 빛 좋은 개살구가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살전5:19).

여러분, 돈의 가치를 알면 돈을 벌려고 밤잠 안 자며 일하고, 돈 벌 궁리만 합니다. 돈이 많을수록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기에 다들 돈, 돈 그럽니다. 예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의 가치를 알게 된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잃지 않기 위해 아마도 몸부림을

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함은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핸드폰의 배터리를 충전하는 것처럼, 기도로 성령을 충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며 기적을 행하신 후에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고, 또 새벽 미명에도 산에 올라 기도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기도할 처소를 찾은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천원과 만원의 가치는 분명히 다릅니다. 만원과 백만 원의 가치는 더욱 다르지요. 돈의 액수가 크면 클수록 더 큰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처럼, 하루 한 시간 기도

하는 사람과 하루 네 시간 기도하는 사람의 능력은 분명히 다릅니다.

가 해 외 집 회 를 나가면 하루 7시간 정도 기도하는데, 그래야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일어납니다.

귀신이 나가고 각색 병이 고침을 받습니다. 예수님처럼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내쫓는 일은 밤이 맞도록 기도해야 가능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는 귀먹고 병어린 귀신들린 아이를 제자들이 어찌하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 데려오자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 그 아이를 고치십니다. 이에 제자들이 '왜 자기들은 능히 귀신을 쫓지 못하느냐'고 질문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막9:29).

아무리 좋은 핸드폰이라도 배터리가 나가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방전되면 전화할 수도, 모르는 것을 검색할 수도 없습니다. 동일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잃으면 우리는 그냥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배터리가 충전되어 있으면 핸드폰의 기능을 다할 수 있는 것처럼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자녀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전화할

수 있습니다. 도와달라고, 고쳐달라고 말입니다. 전화번호요? 바로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로 행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요14:14). 여러분, 옛날에는 유선전화였습니다. 꼭 전화기 앞에 가야 전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누구나 어디든 휴대하고 다닐 수 있는 전화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은 특정인뿐이었습니다. 제사장들과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그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령으로 인해 누구나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만민제사장 시대가 열렸습니다. 성령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전화를 걸면 하나님이 직접 받으셔서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해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라

돈이 지갑에만 있으면 가치가 없습니다. 돈은 쓸 때 그 가치가 나타나듯, 예수 이름도 사용할 때 그 가치가 나타납니다. 그러니 예수 이름을 마음껏 사용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세요. 장사가 안 됩니까? 병이 들었습니까? 물건이 안 팔립니까? 예수 이름으로 그것들을 명령하고, 귀신을 쫓아내세요. 예수 이름 앞에 복종하지 않을 것은 없습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은 허름한 사람이 와도, 험상궂게 생긴 사람이 와도, 못 배운 사람이 와도, 노인이나 아이가 와도 그것을 보는 게 아니라 오직 돈만 보고 물건을 팝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학벌이나 미모, 재력이나 권력을 보지 않으시고, 오직 우리의 중심만 보십니다. 그 안에 믿음과 성령 충만함이 있을 때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처럼 기도를 습관화해서 늘 성령 충만함을 입으십시오. 분명 이 땅에서도 천국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전화 한 통화로!



당신도 세계를
복음화 할 수 있다!

ARS 060-700-0688

구제 및 선교 후원금

1379-01-001903

농협

695001-01-122494

국민은행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가치투자

가치투자의 창시자 벤저민 그레이엄은 누구나 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내고자 노력했는데, 이를 보통 ‘그레이엄 가치투자시스템’이라 합니다. 찰리 멩거는 이를 더욱 단순하게 적용하고자, 투자할 때 문제를 해결하는 일반적인 접근방법과 반대로 움직입니다. 그가 보기에는 투자자가 될 명칭하기만 해도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옳은 것을 잘 알지 못해도 잘못된 것은 쉽게 알아챌 뿐 아니라 틀렸다는 것도 간단한 관찰을 통해 쉽게 입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멩거는 “당신이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똑똑한 것보다 훨씬 유용하다.”고 말했습니다. 멩거는 수익이 크게 나올 것이 분명한 투자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투자는 사실 몹시 드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멩거는 투자를 제대로 하려면 참을성이 많아야 하고 때가 되었을 때는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가격이 크게 오를만한 확실한 것을 찾았을 때, 멩거의 충고는 간단합니다. “크게 배당해라!” 사람은 한탄스러울 정도로 손해를 본 다음에야 비로소 시장보다 더 나은 실적을 낼 수 있습니다. 모든 투자의 평균실적은 곧 모든 자산의 평균실적입니다. 시장과 연결 지어보면, 제로섬 게임일 수밖에 없고 모든 거래에는 양면이 존재합니다. 바로 우리가 주식을 살 때마다 누군가는 그 주식을 팔고 있지요. 시장이 완벽하게 효율적이라면 가치투자는 쓸모가 없습니다. 이는 시장의 허점이 바로 가치투자자

들에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원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가치투자자는 시장의 다른 투자자가 어리석은 짓을 하는 때를 기다리면서 대개의 시간을 읽고 생각하는 데 보내는 것입니다. 가치투자자는 장기적으로 시장에 대해 낙관적인 관점을 가지지만, 단기전망을 근거로 투자결정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가치투자자들은 미래를 단기적으로 예측하는 대신 가격이 적정하게 매겨지지 않은 주식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들의 임무는 가격이 잘못 매겨진 주식의 가치를 알아보는 것이지요. 가치투자자가 행동할 최적의 시기는 시장거래에 참여하던 자들이 공포에 사로잡혀서 가격이 잘못 매겨진 자산을 매물로 내놓을 때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하락세에 있을 때가 바로 가치투자자들이 이익을 얻어낼 가장 유력한 시기가 됩니다. 목사님께서는 “바보는 자기가 바보인 줄 몰라서 바보이고 내가 모르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자가 무식한 자다.”라고 하셨습니다. 모르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지 배우는 것은 자랑스러운 것이라 하셨지요. 하나님도 만물을 숨겨놓으시고 찾아 쓰러면 배워야 한다고 강력하게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가질 수 있고 있어야 남에게 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며 입을 크게 열어 하나님의 생각으로 만물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이미경 권사
lmkwdf@hotmail.com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어떤 목사님이 책을 통해 들려주신 이야기다. 한 교인으로부터 자신의 설교가 노변정담(爐邊情談, Fireside Chat) 같다는 비판을 들었다는 것이다. ‘노변정담’은 화롯가에 둘러앉아서 서로 한가롭게 주고받는 이야기라는 뜻이다. 좋게 말하면 설교가 격의 없이 친밀감을 느끼며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 같다고 받아들이실 수도 있겠지만, 달리 말하면 그만큼 설교에 무게감이나 권위가 떨어지고 감동이 부족하다는 말이다. 그런데 그 비판을 듣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또 다른 한 교인으로부터 요즘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를 많이 받는다는 내용의 감사편지를 받았다고 한다. 매주 설교 때마다 웃기도 많이 웃고 눈물도 많이 흘리며 충만한 가운데 성전을 나서게 되더라는 내용이었다. 똑같은 설교를 들었는데 왜 어떤 사람은 그것을 가벼운 수다나 잡담 수준으로 듣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설교를 통하여 은혜를 받는 것일까? 그 목사님은 설교는 설교를 하는 사람에게도 달려 있지만 설교를 듣는 사람에게도 달려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고 한다. 설교(說敎)에는 반드시 말하는 사람이 있고, 듣는 사람이 있다.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했어도, 듣는 사람에게 그 말씀을 ‘들을 귀’가 없다면 그 설교는 노변정담, 잔소리 내지는 퀘변으로 들릴 뿐이다.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했을 때와 스데반이 공회에서 제사장들과 백성들 앞에서 성령에 충만하여 복음을 전했을 때, 한쪽에서는 3천 명이 회개하며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이를 깔고 소리를 지르며 스테반을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쳐 죽였다. 그들 모두 동일하게 성령의 감동 따라 말씀을 전했지만, 그걸 듣는 사람들의 마음과 자세가 달랐던 것이다. 누군가는 예배와 말씀을 통해 생명을 얻고 귀한 보화를 캐내어 기쁨으로 돌아가는데, 왜 나는 동일한 말씀을 듣는데도 허무하고 힘들고 강박하기만 한가? 그렇다면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집중하며 말씀을 듣는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주목하는가? 특정 설교와 설교자에 대한 편식과 낮가림이 심하진 않은가? 예수님은 말씀하신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신혁주 전도사

사랑은 관심이다

지난 11일, 예향 농아인 선교부와 축복장애인 선교부 식구들이 김포에 있는 염상섭 장로의 불펜 공장을 견학했다. 이날 염 장로는 이 장애우들을 맞이하기 위해 며칠 전부터 공장 주변을 정리하고, 온 가족이 출동하여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여 이들을 정성껏 대접했다. 염상섭 장로의 장애우 사랑은 남다르다. 이는 그에게 아픈 손가락이 있기 때문이다. 그의 자녀도 장애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는 장애우들에게 일거리를 주는 등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갖는다. 그런 염 장로는 즐겨하는 말이 이것이다. “사랑은 관심이다!” 그렇다. 사랑은 관심이다. 사랑은 사랑하는 이가 무엇이 필요한지, 그가 지금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의 형편은 지금 어떤지를 살피는 것이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의 친구요, 병든 자의 친구요, 소외되고 고립된 자들의

친구로 이 땅에 오셨다. 그들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크셨는지 마태복음 25장에는 ‘소자에게 한 것이 당신에게 한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셨다. 염 장로에게 장애를 가진 아들이 더욱 특별한 것처럼, 하나님께 그들은 더욱 귀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예수님께 사랑의 빛을 진 우리, 그 은혜를 안다면 세상으로부터 고립되고 차별되고 따돌림 당하는 자들을 사랑함으로 조금이나마 갚아야 한다. 말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실질적이며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줘야 할 책임이 있다. 염상섭 장로처럼 우리도 주변을 돌아보고 사랑할 수 있는 여유 있는 삶을 살자. 예수님이 기뻐하시도록!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이름, 그것은 사랑이다!

예수중심편집실



누군가의 기쁨이 된다는 것

언젠가 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너 어릴 때 내게 주었던 꽃반지 기억하니?” 나는 단번에 어릴 적 플라스틱 꽃반지를 떠올리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너에게 돌려줄게.” 하시더니 꽃반지 하나를 내미셨다. 그 반지는 유난히 반짝였고, 반지에서 생화에서의 진한 향기가 퍼졌다. 반지엔 꼬리표가 달려있었는데, 내가 드렸던 반지와는 비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적혀있었다. 난 깜짝 놀라 꿈에서 깨었다. 나는 청년 시절, 내가 가진 물질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린 경험이 있다. 부모님 말씀에 따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을 찾느라 직장을 옮겨 다녔고, 가는 곳마다 첫 열매와 십일조를 드리고, 수입의 70~80%는 저축해서 그 반은 또 하나님께 드렸다. 부모님의 가르침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과연 하나님은 그 예물을 잊지 않으시고 지금도 나를 축복하고 계신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기억 속의 가격표는 흐려지고 향기를 뿜어내는 꽃만이 선명해졌다. 그것은 무엇인가 생동하는 것이었다. 그 의미를 찾기 위해 다시 지난날을 곱씹어보니, 어린 시절 아

버지가 늘 하시던 말씀이 생각났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니?”, “할머니와 큰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실까?” 나에게는 그 말이 순종의 동기가 되었다. 순종할 때면 마음이 뿌듯해졌다. 하나님은 꿈을 통해 물질의 축복뿐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신 기쁨의 향기를 보여주신 것이다. 지금의 나는 여전히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의 것들을 드리고 있을까? 사느라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지 못한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워졌다. 하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 또한 깨달았다. 삶의 고통으로 나를 연단하실 때 나를 버리고 오래 참는 것, 나를 아프게 하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 진실된 회개로 돌이키는 것,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것들을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해낼 때 비로소 장성한 자녀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누군가의 기쁨이 된다는 것은 그를 기쁘게 할 생각만으로도 내게 먼저 기쁨이 임한다. 나는 기도한다. 삶의 모든 동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이호은 사모

:: 성경에서 배운다 ::

:: 울림있는 삶 ::

소망의 등불

한 사나이가 배를 타고 가다 폭풍우를 만나 난파되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한 섬에 떠밀려왔는데 갑자기 식인종들이 몰려와 자신에게 왕관을 씌워주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 섬은 난파된 배에서 살아남은 자들을 1년 동안 왕처럼 섬기며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다 들어주다가 1년이 되는 날 잡아먹는다.”는 것입니다. 깜짝 놀란 사나이가 그동안 다른 조난자들은 어떻게 1년을 지냈는지 물었습니다. 이에 식인종들은 “어떤 자들은 원하는 음식을 실컷 먹다가 잡아먹히고, 어떤 자들은 쾌락을 맘껏 즐기다 잡아먹혔으며, 어떤 이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두려움에 떨기만 하다 잡아먹혔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를 들은 사나이는 결심한 듯 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지금부터 섬에 있는 나무와 역청을 이용해 큰 배를 만들어라!” 그렇게 사나이는 1년 동안 자신이 타고 왔던 배보다 더 크고 튼튼한 배를 만들고 물과 음식을 준비케 하여 1년이 되기

하루 전날 유유히 그 섬을 떠나 원하던 목적지로 갈 수 있었습니다. 헛헛한 웃음이 나는 이 우화가 사실은 우리의 삶과 닮았습니다. 강건하면 80이라는 한정된 시간 동안 어떤 자는 먹다가, 누군가는 쾌락을 쫓다가, 어떤 이는 두려움에 떨다 죽음을 맞이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영원한 삶을 준비하며 처음보다 더 나은 모습, 더 귀한 삶으로 성장하다 천국을 향해 유유히 떠나기 때문입니다. 20여 년 전쯤, 그리스도인인 한 친구가 제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긴 믿으니 천국은 갈 거다. 근데 삶은 내가 원하는 대로 편하게 많은 것을 누리다 가고 싶다. 죽음 직전에 믿어도 천국은 갈 텐데, 나는 천국에서 부자로 살고 싶은 소망까지는 없는데 너무 젊은 시절에 믿은 것이 아쉽긴 하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참 오랫동안, 아니 2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마음이 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친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진짜 천국을 준비하는 삶이 되길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을 어떻게 가는지 아는 것과 천국을 가기 위해 소망하며 준비하는 삶은 완전히 다르며, 내 삶의 온 초점과 가치가 하나님께 맞추어진 삶과 내가 천국을 가야 하니 필요한 하나님을 찾는 삶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천국 혼인 잔치를 준비하며 신랑을 기다리던 열 처녀 중 등불을 계속해서 밝혀줄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안타까운 처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욱 경계해야 하는 삶은 신랑을 기다릴 소망의 등불 자체가 없는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우리의 눈을 들어 천국을 소망하는 삶,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의 등불을 준비하는 삶, 성령의 충만함을 잃지 않고 기름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시다. 할렐루야!

하인명 집사

:: From Internet ::

어머니의 가르침

어느 시골의 총각 선생님이 출근길에 시냇물을 건너다 징검다리를 잘못 밟아 신발과 바지가 물에 흠뻑 젖고 말았다. 그는 이대로 출근할 수 없어 집으로 되돌아갔다.

때마침 고향에서 오신 어머니께서 집에 머물고 계셨다. 그가 어머니에게 되돌아온 이유를 말씀드리자 어머니가 이렇게 물으셨다 “네가 밟았던 잘못 놓인 돌은 바로 놓고 왔니?” “미처 그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

치며 존경받는 선생이 되겠니? 얼른 가서 돌부터 바로 놓고 오너라. 그리고 나서 옷을 갈아입도록 해라.” 당시는 어머니의 말씀이 야속했지만, 두 고두고 어머니의 말씀이 그의 삶에 지침이 되었다고 합니다. 가정교육은 아이가 접하는 최초의 교육이며, 최고의 교육입니다.

:: 주 안에서의 삶 ::

하나님의 장막 시리즈 (1)

하나님께서 왜 이 땅을 만드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는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바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시어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는 당신 나라를 세우고자 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은 하나님의 장막(성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으며,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거하시는 장막(성전)이 어떻게 옮겨지고 있는지를 증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에 대한 이야기를 시리즈를 통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창 1:28)고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 땅을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로 채우시고 당신의 나라를 만드시어, 그곳에서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며 다스리시고자 하셨습니다. 이것이 창세의 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 청사진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동쪽 에덴동산에 당신의 거룩한 처소를 세우시고, 아담을 그곳에 두고, 그에게 그곳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습니다(창2:15). ‘다스리다’는 히브리어로 **רָבַד**(아바드), ‘섬기다’

혹은 ‘일하다’라는 뜻이며, ‘지키다’는 히브리어로 **שָׁמַר**(사마르), ‘관리하다’, ‘보전하다’, 혹은 ‘지키다’라는 뜻입니다. 즉, 성막시대의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일하며, 관리하고 잘 보전하였듯이, 아담에게 맡겨진 일은 바로 제사장의 사역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잘 관리하고,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또 아담과 하와는 땅을 경작했습니다(창2:5). 우리가 아마 천국에 가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 아마 경작도 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설립의 청사진이 잘 진행이 되었다면, 우리도 에덴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지냈을 텐데, 그만 옛 뱀, 사단의 유혹으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그 거룩한 곳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땅의 흠으로부터 지어진 아담의 죄를 인하여, 땅은 저주를 받고 만물도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아담의 죄로 인하여 더욱 죄악이 퍼져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이 땅의 삶이 이렇게 힘들고 악하냐고 한탄하며, 하나님께서 잘못 만드신 것이 아니냐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된 원인은 바로 인간의 죄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비록 하나님은 아름답게 만

드시고 좋은 청사진을 가지고 계셨지만, 사람들의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망가뜨리게 된 것입니다. 갈수록 악이 더욱 관영하여지자, 결국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모두 물로 씻어버리시고, 믿음의 사람 노아와 그의 가족을 통하여 세상을 다시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노아의 홍수로 모든 악한 자들과 악한 짐승들은 죽었는지 몰라도, 사람의 악한 속성은 바뀌지를 않았습니다. 비록 의인 노아를 통하여 새로 인간 세상이 세워지지만, 선악과를 먹은 아담으로부터 모든 후손들의 핏속에는 여전히 악이 존재하여 이 땅에는 악이 여전히 남아있었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 인구는 다시 늘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들은 바벨탑을 세워 하늘까지 닿고자 하는 교만의 극치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셨듯이, 알곡이 다칠까 봐 가라지를 추수 때까지 놔두신다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결국 마지막 추수 때까지 인간 세상을 내버려 두시고,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자 계획 하셨습니다. 어떤 계획을 펼쳐가실지 구약은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리즈에 계속 하나님의 장막을 어떻게 세워 가시는지를 보겠습니다. 권문선 목사

임계점을 넘어

제법 큰 농지를 경작하시던 부모님은 동트기 전 늘 농경지로 향하셨다. 그래서 나는 새벽에 등교하는 날이 많았다. 덕분에 어려서부터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생겼다. 나는 요리사가 되고 싶어 큰 음식점에 취직했다. 그러나 요리할 기회는 없었고, 설거지와 보조로 십수 년을 보냈다. 그러나 늘 남들보다 일찍 출근했다. 그런 어느 날 마침내 기회가 왔다. 과음으로 지각이 잦던 주방장은 오픈 시간에 맞춰 요리를 만드느라 다급해했고, 나는 그의 주변을 맴돌며 돕기 시작했다. 자연스레 요리가 손에 익던 어느 날, 대표이사 주방장을 해보지 않겠냐고 제안했다. 얼마나 기다리던 말인데... 그러나 그 자리는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당시 근무하던 음식점은 수학여행 온 학생들로 붐볐고, 하루 전여 명이 넘게 예약이 잡히는 유명한 곳이어서 남자 주방장도 일을 베풀할 정도였다. 그러나 어렵게 다가온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 바닥의 삶을 면치 못할 것을 잘 알기에 필사적으로 전력투구했다. 어릴 적 이미 습관이 된 부지런함을 발동시켜 두 시간 앞당겨 출근했고, 강한 정신력으로 대용량의 각종 조리와 무거운 식자재들, 승진 후의 위계질서 정립 등등을 해결하고 이겨냈다. 온몸의 근육과 뼈마디는 부서지는 듯 했고, 아침에 눈을 뜨면 살아있다는 것이 신기할 정도였으나 매 순간 주님을 부르며 힘을 공급받았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를 읊조리며 기나긴 인내심의 꾸준함 속에서 나는 당당한 주방장으로 변모했다. 많은 사람들이 맡겨진 일 외에는 하지 않고, 조금 힘든 일이 닥치면 ‘나는 여자라서’, ‘나는 연약해서’라며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능력에도 임계점은 있다. 임계점을 넘을 때 물이 끓는 것처럼, 능력의 임계점을 넘을 때 내 안에 잠재된 능력이 분출되는 것이다. 인생에 쉴새 없이 다가오는 거센 파도, 그것을 이겨낼 때 유능한 해군이 된다. 당신도 할 수 있다.

추성숙 집사

